



글쓰기 마당

|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

홈스크 한국어 학교 교사 한 도 화



수업을 위해 가는 길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린다. 기나긴 겨울을 알리며 하얀 눈이 바람에 맞춰 춤을 춘다. 눈(目)에 눈(雪)이 들어간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눈을 발음할 때 하나는 짧게, 다른 하나는 길게 해야 옳은데... 누가 그것을 의식하며 말할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한국어는 나의 모국어로서 태어나면서부터 들어 왔고 수십 년 동안 사용하고 있으며 문법을 따지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러시아에 몸을 담고 산 지 어언 20년이 다 되어간다. 러시아어로 거침없이 말하는 이곳 아이들에 비해 나는 아직도 문장마다 구조와 문법을 살펴보며 말하게 된다. 아무리 혀를 이리 저리 굴려도 그들과 똑같이 발음하는 게 어렵다. 왜냐하면 러시아어는 나에게 외국어이기 때문이다.

3년 전부터 홈스크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어를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들이 배우는 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습득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므로 이를 위해 더 많은 책을 파고들고 한국어를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하게 되었다. 가르치면 배운다고 했다.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면서 나 스스로가 한국어를 새롭게 많이 배웠다.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보다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본다.

현재 홈스크에는 2학년 학생으로부터 60세에 가까운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30명 정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수업은 하루에 네 시간 씩 일주일에 두 번 진행된다. 교실이 엘리베이터 없는 8층에 있어 오르내리기 벅차고 쉬는 시간 없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때론 힘이 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실력이 늘어나는 학생들을 보면 힘이 나고 보람을 느낀다. 수업에 마땅한 교재가 없을 경우 단어카드나 노래 등 학생들이 보다 재미있고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보조 자료를 준비해본다. 때로는 생각이 종일 한글학교에만 집중되어 인터넷과 책을 통해 좋은 자료를 찾아 수집해 놓기도 한다. 그러나 수업을 위해 많은 내용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어는 인간의 생각을 반영하며 대화를 나누기 위한 수단이 된다. 언어는 단순히 글자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의 문화, 역사, 특성이 담겨 있다. 때문에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국어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을 열어주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얼마 전부터 홈스크 한인회를 주축으로 사물놀이와 전통무용을 배우는데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장구소리, 징소리가 동해바다를 건너와 사할린 섬에 상륙하더니 드디어 잠잠하던 홈스크 바닷가에 울려 퍼지고 있다. 어디로 가려! 한국인 속에 흐르는 피가...

세계 속으로 퍼져나가는 한류의 열풍이 이곳에도 강하게 불길 기대한다. 욕심을 낸다면 더욱 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우리말을 배우기에 앞장서서 가정 내에서도 한국어가 자유롭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홈스크에도 곧 한국 텔레비전 방송이 나온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어를 들을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홈스크에 사는 한인들이 하나 되어 다음 세대에게 한국의 고유한 문화유산과 전통을 계승하고, 현재 살고 있는 홈스크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기여를 하길 바란다. 한인들은 우리 사회에 더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안겨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데 적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나는 오늘도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다.